

# I. 古書紹介

## 1. 青莊館全書 解題

斗溪 李丙燾

近朝鮮後期의 英祖·正祖兩代는 정히 清朝文化의 絶頂期인 乾隆의 治世에 당하여 밖으로 그 學術文化와 西學의 影響을 받고 안으로는兩代의 右文政治와 앞서부터 짹터오던 新機軸의 潮流에 응하여 文人 學者的 輩出과 함께 文藝復興의 樣相을 나타내고 있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리하여 당시 學界에는 實事求是, 博學·啓蒙의 學風과 思潮가 흐르고 있었음도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었다. 이때 이러한 學風과 思潮를 代表한 碩學들을 든다면 아무래도 당시의 舊宿인 李瀆(星湖)을 위시하여 安鼎福(順菴)·申景濬(旅菴)·洪良浩(耳谿)·洪大容(湛軒)·朴趾源(燕巖)·李德懋(雅亭)·柳得恭(冷齋)·朴齊家(楚亭)·成海應(研經齋)·丁若鏞(茶山) 및 徐有榘(楓石)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順序(年齡) 가운데 朴趾源 以上의 諸人과 그 아래 丁若鏞의 著述文字는 대개 全集 또는 部分的으로 이미 刊行·流布되고 있지만, 그밖의 사람들의 遺著는 一部의 刊行本 또는 轉寫本이 행세하고 있을 뿐, 아직 全集·全書의 形式으로서 刊行된 것은 없다. 그 중에도 특히 李德懋·成海應의 遺著는 각기 既成編纂의 全集寫本이 存傳하고 徐有榘의 名著인 龍大한 林園十六志도 오직 轉寫本으로 傳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런 類의 古書가 속히 刊行되기를 渴望하고 있던 차에, 이번 서울大學校古典刊行會에서 第一着으로 李德懋의 「青莊館全書」를 影印에 부치었다. 이 얼마나 기쁘고意義깊은 일이냐.

李德懋(1741~1793)는 宗室 茂林君(定善生)의 後裔인 聖浩의 아들로, 字는 懈官, 號는 雅亭인데, 이밖에 焰菴·青莊館 또는 東方一士라고도 自號하였다. 그는 貧困한 家庭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穎救하고 探究癖이 있어 별로 師承系統 없이 羣書를 涉獵하여 그야말로 博覽強記, 奇聞異語를 抄錄하

기를 좋아하였다. 正祖 3 年에 王이 闕內에 奎章閣을 설치하고 俊才를 뽑아 쓸때, 特히 李德懋 · 柳得恭 · 朴齊家 · 徐理修를 檢書官에 任하니 세상에서 이른 바 四檢書官이 그들이었다. 李德懋는 이로부터 闕內所藏의 奇文珍書를 마음대로 閱覽할 機會를 얻고 또 同僚 名流들과 서로 講酬하여 識見을 더욱 넓히었다. 그는 그의 뛰어난 才識으로 正祖의 特別한 知遇를 받아 諸種 編纂事業에 參與치 아니함이 없었고(例如 國朝寶鑑 · 羲墻錄 · 文苑編叢 · 大典通編 · 宋史筌 · 奎章全韻 등등) 그 후 察訪 · 主簿 · 縣監 등을 歷任하였다. 일찌기 (正祖 2 年) 그는 赴燕使 沈念祖를 따라 燕京(北京)에 가서 두루 見聞, 이름난 琉璃廠(書肆의 總本部)에는 數次 발걸음하여 諸種 異書를 觀覽하고 그 나라의 文人 才士들과 接觸 談話한 일이 있었는데, 特히 杭州人 潘庭筠과의 交遊가 깊었다(그의 「入燕記」는 이 때의 旅行記).

當世의 啓蒙的인 潮流는 好癖의 李德懋로 하여금 더욱 多岐多彩롭게 하여 그는 經 · 史 · 文藝로부터 輿地 · 經濟 · 制度 · 風俗 · 金石 · 圖書 其他 鳥獸 · 草木에 이르기까지 널리 探究하고 考據辨證에 精通하였다. 그의 文章은 古人の 套習을 밟지 않고 低俗에도 흐르지 않는 一種 奇高한 風을 나타내면서 描寫에 曲盡하였고, 詩는 새로운 格을 떠어, 柳得恭 · 朴齊家 · 李書九의 詩와 더불어 四家의 稱을 들게 되었다. 書畫는 그에 있어서는 한 餘技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역시 一家로서의 獨特한 맛을 들어내었다. 그는 一生에 恨이 많았다. 身分的制約에 대한 恨, 貧困生活에 대한 恨, 氣質의 虛弱에 대한 恨 등이었다. 이러한 恨과 不平은 그의 修養된 品格때문에 밖으로 表現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그 表現치 못하는 마음 속에 쌓인 憂鬱한 기분은 때로 詩歌와 遊覽과 書畫에 의하여 發散시키기도 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研究와 著述의 眞味眞樂으로써 같았하고 위로하였던 것으로 推察된다. 그는 貧寒속에서 마침내 53 歲란 短壽로써 세상을 떠났지만, 等分의 著述을 남기었으니, 그 어찌 一時的인 富貴나 榮華에 비길 수 있었으랴. 李德懋가 돌아간지 3 年後인 正祖 20 年(1796)에 平素 그의 才識을 알아 주던 王이 그의 逝去와 不遇를 愛惜히 여기는 나머지 그의 아들 光葵로 하여금 역시 檢書官을 삼고 또 特히 閣臣들에게 命하여 德懋의 遺稿를 撰輯케 하는 동시에

內帑金을 내어 刊行케 하였으니, 雅亭遺稿 8卷이 곧 그것이다. 이 책의 序文은 撰集에 關與한 당시의 名流 尹行恁과 南公轍이, 跋文은 그의 親友인 靑城 成大中이 짓고, 行狀을 역시 그의 交友인 燕巖 朴趾源이 執筆하였던 것이다.

正祖의 特命으로 刊行된 雅亭遺稿 8卷(共 4冊)은 李德懋의 許多한 詩文 가운데서 단지 編輯者の 主觀에 의하여 精粹라고 생각되는 部分을 추려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遺著의 全部는 勿論 아니다. 또 燕巖 朴趾源의 「烟菴(李德懋)行狀」에는 李德懋의 遺著를 모두 12種이라 하여 「嬰處稿」「青莊館稿」「耳目口心書」「士小節」「清脾錄」「紀年兒覽」「蜻蜓國志」「留葉記」「寒竹堂涉筆」「禮記臆」「宋史補傳」「磊磊落落書」 등을 들고 있는데, 이 역시 그 遺著中의 重要한 書種만을 列舉한데 지나지 않는다. 실상은 이 밖에도—— 소소한 것까지 합치면——10餘種이 더 있다. 어떻든 李德懋의 遺著 全部를 網羅한 것이 靑莊館全書이 아니와, 이 全書의 編輯은 그의 아들 光葵에 의하여, 校訂은 李晚秀에 의하여 된 것이었다. 光葵가 編輯한 全書의 完本(寫本)은 어떻게 되었는지, 現在 그 所傳 與否를 알 수 없다. 本書는 즉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 奎章閣藏書本을 影印한 것이나, 이 奎章閣本이 原本(寫本)에 依한 轉寫인지, 혹은 다른 어느 轉寫本의 再轉寫인지, 그것도 자세치 않다. 但 이 藏書本이 日帝時代(初期)의 轉寫인 것은 그 用紙가 日本白紙요, 表裝이 日本式인 것으로써 容易하게 알 수 있거니와, 한가지 遺憾은 全帙 33冊中 8冊을 缺한——共25冊의——落帙本인 것이다. 그러면 이 藏本이 中間에 缺落된 것이냐. 또는 처음부터 落帙本에 依한 것이냐가 問題인데, 그 表紙邊에 「共25」라고 한 것을 보면 後者의 境遇인 것이 分明하니, 그 底本에 이미 그러한 缺落이 있었던 모양이다. 奎章閣本의 靑莊館全書가 이와 같이 不完全한 寫本이기는 하나, 그 底本의 所存與否도 알 수 없고, 또 이밖에 八冊이나 缺한 全帙本이거나 落帙本이거나간에 다른 本이 國내에 있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하였다. 日本의 故 前間恭作氏의 力著인 古鮮冊譜(卷 2)의 靑莊館全書條에 依하면, 「淺見氏蒐集所見」에 나타난 同全書의 内容目次와 또 「此本缺本, 所存四十餘冊」이란 것을 引用하였는데, 도대체 「淺

見氏蒐集所見」이란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다. 淺見氏는 故 淺見倫太郎氏를 말함인듯 하나, 그것이 淺見氏 自身에 依한 藏書所見인지, 또는 他人에 依한 淺見氏所藏書의 所見인지, 分明치 못하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青莊館全書의 目次가 위에 말한 燕巖集의 烛菴(雅亭)行狀에 보이는 著書12種 그대로의 内容順序인 것을 發見하였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全書의 内容은 이른바 「12種」 以上의 다른 많은 遺著까지도 網羅한 것인즉 所謂 淺見氏蒐書所見에 나타난 青莊館全書가 어떤 類의 것인지, 事實 暧昧하기 짝이 없다. 더우기 缺本이라고 하면서 所存 40餘冊이란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이른 바 40餘冊을 40餘卷의 誤로 보고 또 그러한 落帙의 全書가 실제 淺見氏蒐書中에 들어 있다고 본다면, 거기에 缺本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목次를 들지 못하고 아마 便宜上 위의 行狀에 보이는 書目대로 적은 것이 아닌가도 推察된다. 하여튼 이 問題는 後考로 남겨 둘수 밖에 없다.

舊 京城大學 教授이던 故 今西 龍氏의 藏書中에도 青莊館全書의 表題를 가진 一寫本이 있어, 당시 또 그것을 轉寫한 1冊이 現在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古圖書)에 所藏되어 있는데, 이것은 全書中 「編書雜稿」의 一部로서, 全書 第23卷 및 第24卷에 속한다. 全書中の 其他 書種으로, 一部單行寫本(例如…金斗鍾博士 所藏「清脾錄」2冊) 또는 單行抄本(例如…서울 大學校附屬圖書館所藏의 「清脾錄」1冊, 筆者所藏의 「盞葉記」1冊)이 행하고 있으나, 온전한 全書의 所在與否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면 원 青莊館全書의 卷冊數와 内容書目, 그리고 兩者的 關係는 어찌하여 奎章閣藏本의 缺落狀態는 어찌한가를 다음에 말하여 보자. 먼저 前者에 대하여 말하면, 全書의 總卷數는 72卷, 冊數는 共33冊이며, 内容書目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더러 未詳한 點도 있지만 대체로 아래의 表示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冊 次	卷 順	內容書目	次 序
第一册	卷 一~二	「嬰處詩稿」	一~二
第二册	卷 三~四	「嬰處文稿」	一~二
•	卷 五	「嬰處雜稿」	一
第三册	卷 六	「嬰處雜稿」	二

次 冊	卷 順	内容書目	次 序
	卷 七~ 八	「禮 記 憻」	一
第 四 册	卷 九~ 十二	「雅亭遺稿」	詩
第 五 册	卷 十三~ 十四	「雅亭遺稿」	(未詳)
第 六 册	卷 十五~ 十六	「雅亭遺稿」	書
第 七 册	卷 十七~ 十八	「雅亭遺稿」	書
第 八 册	卷 十九~ 二十	「雅亭遺稿」	書
第 九 册	卷二十一~二十二	「編書雜稿」	一~二
第 十 册	卷二十三~二十四	「編書雜稿」	三~四
第 十一 册	卷二十五	「紀年兒覽」	上
第 十二 册	卷二十六	「紀年兒覽」	下
第 十三 册	卷二十七~二十八	「士 小 節」	上中一
第 十四 册	卷二十九~三十一	「士 小 節」	中二~下
第 十五 册	卷三十二~三十三	「清 脾 錄」	一(?)~一二(?)
第 十六 册	卷三十四~三十五	「清 脾 錄」	二(?)三~四(?)
第 十七 册	卷三十六~三十七	「磊磊落落書」	一~二(?)
第 十八 册	卷三十八~三十九	「磊磊落落書」	三~四(?)
第 十九 册	卷四十 ~四十一	「磊磊落落書」	五~六
第 二十 册	卷四十二~四十三	「磊磊落落書」	七~八
第二十一册	卷四十四~四十五	「磊磊落落書」	九~一〇
第二十二册	卷四十六~四十七	「磊磊落落書」	補編上下
第二十三册	卷四十八~五十	「耳目口心書」	一~三
第二十四册	卷五十一~五十三	「耳目口心書」	四~六
第二十五册	卷五十四~五十五	「盜 葉 記」	一~二
第二十六册	卷五十六~五十七	「盜 葉 記」	三~四
第二十七册	卷五十八~五十九	「盜 葉 記」	五~六
第二十八册	卷六十 ~六十一	「盜 葉 記」	七~八
第二十九册	卷六十二	「西海旅言」	「輪回梅十箋」
		「山海經補」	「測上方言」
	卷六十三	「天涯知己書」	「蟬橘堂濃書」
		「丙 丁 表」	
第三十 册	卷六十四~六十五	「蜻蜓國志」	上下(?)
第三十一册	卷六十六~六十七	「入 燕 記」	上下
第三十二册	卷六十八~六十九	「寒竹堂涉筆」	上下
第三十三册	卷七十 ~七十一	「附 錄」	上下

다음에는 이 影印의 原本인奎章閣本의 實態에 대하여 말할 順序인데, 여

기에는——위에 말한 바와 같이——8册의 缺落이 있다. 그것을 具體的으로 들면, 第五冊(卷十三~十四), 第七冊(卷十七~十八), 第十冊(卷二十三~二十四), 第十五冊(卷三十二~三十三), 第十六冊(卷三十四~三十五), 第十七冊(卷三十六~三十七), 第十八冊(卷三十八~三十九), 第三十冊(卷六十四~六十五)이니, 그 缺本의 内容書目은 즉 「雅亭遺稿」의 一部, 「編書雜稿」의 一部, 「清脾錄」의 全部 「磊磊落落書」의 太半 및 「蜻蜓國志」의 全部인 것이다.

이들 缺本中에는 여러 다른 單行寫本 또는 刊本으로써 補充할 수 있는 것 이 있으므로 利用의 便宜上 이 機會에 그것을 各卷末에 補遺로서 添加하기로 하였다. 即 「雅亭遺稿」는 一部 重複되는 感이 있으나 奎章閣圖書中の 單行刊本인 「雅亭遺稿」全部를 底本으로서 補充하고 「編書雜稿」卷三, 卷四是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所藏 古圖書中에 있는 故 今西 龍氏 所藏寫本의 轉寫本을 底本으로서 補充하였으며 「清脾錄」은 全部 金斗鍾博士 所藏의 單行寫本을 底本으로써 補充하였다. 그리고 이 以外의 다른 것은 다음 機會에 追補本으로써 내려고 하는 듯하다.

그는 그렇다 하고 다음에는 青莊館全書에 網羅된 諸種書目에 對해서 極히 간단한 說明이라도 적어야 하겠는데 紙面關係로一一하는 할 수 없고, 단지 그중에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書目에 限하여 紹介하려고 한다.

첫째의 「嬰處詩稿」「嬰處文稿」 및 「嬰處雜稿」등은 李德懋의 少年時代에지 은 詩文을 모은 것으로, 婴處는 嬰兒處子의 뜻이니, 著者 自身이 自號처럼 題名한 것이었다.

다음의 「禮記臆」은 禮記에 대한 一種의 研究로서, 「諸家註說」내지 字義의 考證批判을 加한 것이라 하겠다.

「雅亭遺稿」는 一名 「青莊館稿」라고도 하거니와, 역시 著者の 詩文 등을 自身이 撰集한 것이므로, 저 王命에 의하여 編輯刊行된 「雅亭遺稿」와는 内容과 分量이 다른 것을 注意하여야 하겠다.

「編書雜稿」에는 編纂關係의 文字를 收錄한 것으로, 그중의 重要한 것이 宋史補傳이니, 正祖가 일찌기 宋史의 杜撰을 遺憾으로 여기어 諸臣에게 刪定을 命하여 40冊(宋史筌)을 만들고, 그 补傳(高麗·遼·金·蒙古 등 列傳)

을 李德懋에게 命撰케 한 것이었다.

「紀年兒覽」은 원래 李德懋의 先輩인 李萬運이 編著한 것인데, 그 編次와 内容의 未備를 (李德懋가) 大幅 修補한 것이니, 실상은 並著인 것이다. 内容은 中國 및 우리나라의 上古로부터 著者時代에 이르기까지의 歷代 世次의 要綱과 州郡, 내지 日本·琉球 등의 그것까지 附錄한 것으로, 兒童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日帝初에 出版된 朝鮮古書刊行會本中에도 이것이 들어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士小節」, 여기에는 士典·婦儀 및 童規 등 諸篇으로 나뉘어, 선비·婦女子·兒童들의 日常生活에 있어서의 禮節과 修身에 관한 規範을 보인 것이다

「清脾錄」은 古今人の 詩話를 收錄한 것이며, 「磊磊落落書」, 이것은 一種의 中國人物志로서, 특히 明末遺民에 관하여 諸種 書籍의記事를 그대로 拔取한 것인만큼一一히 引用書目을 附記하였다.

「耳目口心書」는 글자 그대로, 귀로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입으로 말한 바 마음으로 생각한 바를 적은 것이니, 三官記와 같은 類의 것이다.

「盜葉記」는 一種의 小論文集, 資料集 또는 小百科辭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중에는 興味있고 參考할 거리가 많이 실려 있다.

「蜻蜓國志」는 즉 日本國志로서, 日本의 世系·地圖·風俗·言語 내지 物產등을 적은 것이다.

「入燕記」는 著者の 燕行錄이며 「寒竹堂涉筆」은 著자의 沙斤驛(慶尙道咸陽) 察訪時의 見聞記이며 「附錄」은 著자의 先考年譜이다.

全書에는 上記 書種 以外에도 著者와 中國文士와의 往復 尺牘을 收錄한 「天涯知己書」, 또 京畿地方의 俚語(俗談)를 모은 「冽上方言」등이 包含되어 있다.

要컨대 全書는 우리에게 著者の 多彩한 學問과 幾多의 好資料를 提供하고 있거니와, 특히 當代의 實學中心의 學風과 趣向中에도 博學·啓蒙的인 思潮의 흐름을 如實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良書를 第一着으로 影印 配布하는 서울大學校古典刊行會의 意圖를 또한 높이 評價하고 싶다.

〈筆者：前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長  
現成均大學校圖書館長〉